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삶의 끝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시작, 30년의 동행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30주년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했다.

부천성모병원은 인간 생명 존중의 가톨릭 이념을 실천하고, 말기 암 환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돕는다는 숭고한 목표 아래, 1995년 경인 지역 최초로 호스피스병동(現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을 설립했다. 이후 30년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은 **1만 2천 명 이상의 환자**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돌보았다.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인력은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영적 돌봄을 아우르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원목자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다학제 팀은 다양한 환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1,200회 이상의 요법치료,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30년간 12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매주 기도, 마사지, 침상 준비 등을 지원하며 환자가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가 30년을 이어올 수 있게 한 **17,000여 명이 넘는 후원자**도 큰 힘이 되었다.

나아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진료 외적으로도 호스피

스완화의료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호스피스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매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매년 '호스피스의 날 기념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병원을 넘어 지역 사회에도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있다.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이번 30주년을 넘어, 앞으로도 환자의 존엄성과 삶을 지키기 위해 전문 진료와 봉사를 비롯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요법치료

- ▶ 1,226회 시행(2017~현재)
- ▶ '마지막 여정을 결코 혼자가 아닌 길'로 만들기 위해, 음악 · 미술 · 원예 · 차 요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각종 비용 지원

- ▶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생계비 등을 환자 및 가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치료의 지속성과 돌봄 환경 보장, 환자 가족의 일상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벤트 행사

- ▶ 총 7,500회 이상 진행(1995~현재)
- ▶ 생신잔치, 세례식, 병자성사 등 종교행사와 더불어 가족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연간 캠페인

- ▶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호스피스의 날 기념 홍보 캠페인'을 열어 병원 안팎에서 홍보 부스 운영, 체험 프로그램, 시민 대상 교육 등을 통해 호스피스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사별가족 모임

- ▶ 분기별로 사별가족 대상 모임을 진행해 심리적 지지와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 추모제에 사별가족을 초청하고 고인을 추모하며 신앙적, 공동체적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 존엄한 마지막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30년의 봉사, 이영 루시아 선생님께 묻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는 현재 20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환자들의 병동 생활을 돕고 있고, 거처간 봉사자분들은 120명이 넘는다. 이 중, 센터의 시작과 동시에 자원봉사를 시작해 계속 자원봉사를 진행 중이신 이영 선생님께, 30여 년간의 기억과 소감을 여쭙었다.



+ 처음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한 건 아마 1994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8남매 중 장남인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본인에게는 병명을 알리지 않았죠. 평소 성격이 불같으셨기 때문에 '위암'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충격이 클까 봐, 가족들이 상의 끝에 '위궤양'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자신이 위궤양인 줄 알고 수술과 재활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생각이 참 많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본인 병도 모른 채, 주변 관계도 정리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내 죽음은 내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호스피스'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마침 부천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이 있어 등록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게 어느덧 30년이 됐네요.

+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은 없었는지

호스피스를 막 시작했을 때 만난 환자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땐 호스피스병동이 따로 없어서, 명단을 받아 다른 병동 환자분들을 찾아다녔거든요. 퇴원하신분은 집으로도 찾아갔어요.

그 중 산부인과에 입원하신 환자분이 계셨는데, 1년 6개월 동안 만났어요. 임종이 다가오던 어느 날 연락을 받았는데, 하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마지막 인사를 못 갔어요. '마지막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몇 달을 힘들어하며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언덕에서 내려오시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부둥켜안고 '보고 싶었다'며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죠. 꿈인데도 너무 생생했어요.

그 이후로는 환자분을 보내드릴 때 '먼저 가세요, 우리 다시 만나요'하면서 기도해 드려요. 돌아가신 분들의 표정이 정말 편안하거든요. 고통스럽던 분들이 마지막엔 그렇게 평온한 얼굴로 가시니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한 마음이 커요.

+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면서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죽음을 앞둔 분들은 정말 진실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분들도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다 보니,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환자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힘든 일상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누리는 평범함이 결코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됐어요.

+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조언한다면

30년 동안 정말 많은 봉사자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적성에 맞는 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어요.

호스피스 봉사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창기에 함께하던 봉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스피스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면 그 눈높이에 맞추고, 어린 환자를 만나면 그 눈높이에 맞추면 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거창하게 '사명감'이라기보다는 '내 시간을 이분들께 내어드린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마음이에요.

죽음을 앞둔 분들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는 자신이 가장 아팠던 순간을, 또 누군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30년을 함께한 소감과 바람

30년 동안 정말 많은 의사, 간호사, 봉사자분들이 다녀가셨어요. 그분들이 함께 만들어 온 따뜻한 시간이 지금의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를 있게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따뜻함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항암치료를 오래 하다가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지쳐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호스피스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일찍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와가족 이야기

호스피스에서 배운 마음의 표현 조은 의료사회복지사

호스피스 수련 과정에서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니 가족에게 소홀했던 제가, 환자와 가족을 통해 '마음의 표현'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환자 곁에서 가족들이 편지를 읽어주고 목소리를 들려주던 순간,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사랑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무뎠던 손녀가 할머니께 전하고 싶다며 적어 내려간 감사와 다짐은 직접 들려드리진 못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호스피스는 가족이란 가장 익숙하기에 소중함을 잊기 쉬운 존재이며, 진심은 언제나 표현할 수 있고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끄럽지만 사랑한다는 말도 용기 내어 전해보려 합니다.

나의 호스피스 이야기 이태진 자원봉사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서 봉사한 지 십여 년, 나의 시작은 집안의 아픔과 우연히 본 성당 주부의 봉사자 모집 공고였다. 처음 환자를 만났을 때는 숨겨왔던 상처가 되살아나 힘들었지만, 수많은 이별을 겪으며 조금씩 덜 세속적이고 덜 물질적인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말이 암 환자가 원했던 내일이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미루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고, 봉사를 통해 담배도 끊고 가족 공예로 사별 가족들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다.

작은 나눔 속에 오히려 더 큰 감사와 사랑을 돌려받았다. 먹고 싶던 음식을 상상하며 물을 드시던 환자의 미소, 그리고 빈 침상을 마추한 서운함과 자책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며 삶을 소풍처럼, 수채화처럼 그리고 싶다는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의과대학 유승아 교수, 류마티스관절염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 열다

의생명과학교실·창의시스템의학연구센터 공동 연구팀, 관절 파괴 핵심 세포 억제 원리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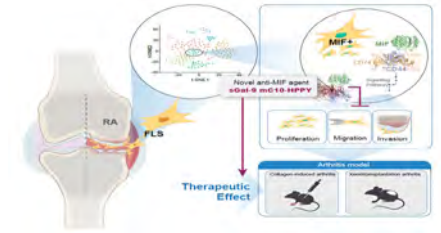
유승아 · 김완욱 교수 · 이미령 · 남민경 박사(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유승아 교수팀과 창의시스템의학연구센터 연구팀이 지바이오로직스(대표 송동호)와 함께 류마티스관절염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에는 유승아 교수(공동 교신저자), 김완욱 교수(공동 교신저자), 이미령 박사(공동 제1저자), 남민경 박사(공동 제1저자)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막, 즉 활막이 증식하며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 뼈까지 파괴한다. 현 치료제는 면역세포의 반응과 염증 신호의 억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치료는 어려웠다.

연구팀은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기법을 통해, 활막세포 중 MIF(대식세포 이동 억제 인자)라는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드는 아형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이 세포는 내부 미토콘드리아와 단백질을 가공·운반하는 소포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 과도하게 증식해 뼈, 연골을 파괴하는 주범임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발견된 아형 세포를 MIF-high FLS(섬유아세포형 활막세포)라고 명명하고, 지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재조합 안



▲류마티스관절염 원인 세포 억제 확인 모식도

정화 단백질 갈렉틴-9을 활용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갈렉틴-9은 MIF와 그 수용체인 CD74/CD44 경로를 차단해 활막세포의 증식, 이동, 침습을 억제하고 관절 파괴를 감소시켰다. 기존 치료제와 다르게 관절염의 핵심 병인이라 할 수 있는 활막세포 자체를 직접 억제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Molecular Therapy》(IF=12)에 최근 게재됐다.



항바이러스제가 거대 세포 바이러스 앞포도막염 재발 낮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과 최진아 교수 공동 연구팀 발표



최진아 교수 · 김민호 원장 · 박명희 원장 · 이지영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안과 최진아 교수와 압구정성모안과 김민호 · 박명희 원장, 대전성모병원 안과 이지영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거대 세포 바이러스 앞포도막염의 반복적인 재발을 겪는 환자 136명을 대상으로 점안 및 경구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효과를 27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항

바이러스제가 재발 위험이 높은 거대 세포 바이러스 앞포도막염의 재발률을 60% 낮추고, 각막 내피세포 손실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거대 세포 바이러스 앞포도막염은 반복되는 염증과 안압 상승, 각막 내피세포 손상 등으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연구팀은 해당 질환이 재발이 잦은 편

임에도 재발 빈도 및 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에 착안해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들의 재발 횟수가 항바이러스제 치료 전 연 2.87회에서 치료 후 연 1.16회로 6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초기부터 투여한 환자군이 초

기부터 점안 항바이러스제 투여군에 비해 각막 내피세포 손실 억제 효과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빈센트병원 안과 최진아 교수(공동교신저자)는 “앞포도막염 환자 중 잦은 재발과 높은 안압, 각막 내피세포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 거대 세포 바이러스로 인한 앞포도막염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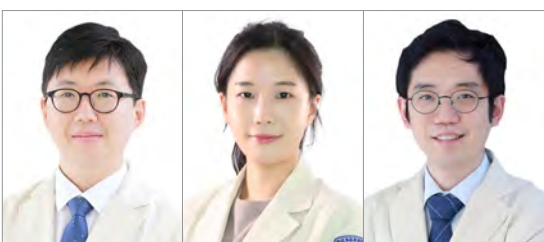
이어 압구정성모안과 김민호 원장(공동교신저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거대 세포 바이러스 앞포도막염의 재발 억제와 예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안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SCI급 국제 학술지 《Ophthalmology》(IF=9.5)에 게재되며, 학술적 의의를 높이 평가받았다.



간암 면역항암 치료 효과, 혈액한 방울로 예측

4가지 전통적 염증인자 통합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PBIS'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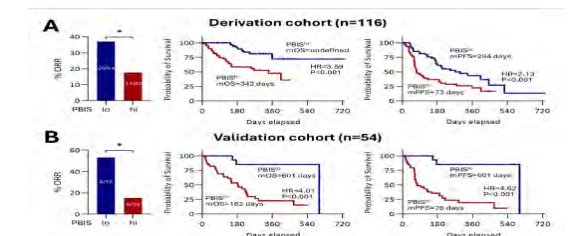
한지원 · 조희선 · 이순규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한지원(교신저자), 조희선(공동1저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순규(공동1저자) 교수 연구팀은 진행성 간암 환자에게 1차 치료로 널리 사용되는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AB) 병용요법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혈중 지표 'PBIS(Peripheral Blood

Inflammatory Score)'를 개발하고, 서울성모병원에서 면역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116명과 인천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54명을 분석해 예측력을 검증했다.

PBIS는 주로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들의 활성 여부와 면역반응에 대한 순응도를 평가하는 각각 다른 의미의 평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평가지표는 호중구-림프구 비율, C-반응성 단백질, 인터루킨-2, 인터루킨-12으로, 이 중 두 개 이상이 정상 기준치보다 높으면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검증 결과 PBIS 수치가 높은 그룹은 전체 생존율, 병이 진행되지 않는 무진행 생존율, 치료의 객관적 반응을 예측하는 유익하게 좋지 않았다. 또한 예측법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통계 분석 결과, PBIS 수치가 높은 그룹의 사망 위험은 3.6배, 진행 위험은 2.1배 높았다. 반면, 간암의 1차 표적치



▲PBIS 분석 결과 2개 이상 염증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한 환자군(빨간색)의 예후가 유의하게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함

료제인 렌비티닙 치료군에서는 PBIS가 치료 반응을 예측하지 못해, PBIS가 특히 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병용 면역치료에서만 유효한 바이오마커임을 시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이번 연구 결과는 종양 면역 분야 국제 학술지 《Frontiers in Immunology》(IF=5.9)에 최근 게재됐다.



PEOPLE

의사로서가장 큰 보람은 환자의 회복을 보는 일

의정부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성수 교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시경은 단순히 병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병을 찾아내고, 동시에 치료까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의술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성수 교수의 말은 단호했다. 그는 위암, 위식도역류질환, 소화성궤양, 헬리코박터 위염 등 소화기질환 분야에서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연간 1만 6천 건 이상의 내시경 시술을 이끄는 중심인물이다.

의정부성모병원 소화기내과는 진단과 치료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내시경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 교수는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환자의 신체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르기에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환자 안전’이다. “내시경 시술은 정밀함이 생명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죠. 환자 한 분 한 분이 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시술에 임합니다.”

30년 임상과 연구, 위암 예방의 해법을 찾다

김성수 교수의 의료 여정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1989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2000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지금까

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위장관질환의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2003~2004년에는 미국 브라운 대학교 위장연구소에서 연수를 받으며 최신 위장 질환 연구를 경험했다. “연수 당시 느낀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국경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를 중심에 둔 진료 시스템은 선진 의료의 핵심 가치였죠. 귀국 후 이를 병원 시스템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위암 예방이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년 넘게 IARC(국제암연구소), 국립암센터, 여러 대학 연구진과 함께 위암 예방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은 국내 위암 조기진단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2009년 대한소화기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위장관 내시경 절제술, ‘수술 없는 완치’를 현실로

김성수 교수는 내시경 치료의 가장 큰 강점은 ‘환자의 회복 속도’라고 강조한다.

“조기 위암이나 용종 환자의 경우, 개복 수술 대신 내시경으로 병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절개가 없으니 출혈 위험이 적고 입원 기간도 짧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죠.”

현재 의정부성모병원 소화기내과는 최신 내시경 장비를 활용해 병변의 미세한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밀 진단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 교수는 “내시경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진화”라며 “앞으로도 더 정밀하고 안전한 시술을 통해 완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암은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그의 진료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이 내원한다. 위장관 출혈 환자부터 헬리코박터 감염 환자까지 다양하다.

“위장관 출혈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출혈 부위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내시경실에서 피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의 시술로 출혈을 잡아 환자를 살려낸 순간은 의사로서 가장 긴장되고 벅찬 순간이죠.”

김 교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임상 경험의 무게’를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결국 경험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조기 위암은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입니다.”

그는 특히 경기 북부의 중증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정부성모병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때로는 병이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을 통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환자의 회복을 보는 일

김 교수에게 진료란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다. “조기 위암 환자가 내시경 절제술로 완치되어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시경 치료는 의사로서의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합니다.”

그는 진료와 연구의 병행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의학은 결국 임상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답했다.

“연구는 환자 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진료 중 느끼는 의문이 연구의 시작이 되고, 연구 결과가 다시 환자 치료에 적용되는 순환이 진정한 의학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환자 안전, 그 위에 혁신이 있다

김성수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지키는 철학은 단순하다. “환자 안전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 위에 혁신이 존재합니다.”

그는 수술보다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내시경 기술과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환자분들이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정밀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은평성모병원 **오늘FC**, 이제와 항상 **파이팅!**

은평성모병원 축구 동호회 오늘FC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위치한 병원 간 친선축구대회가 열린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이 대회의 명칭은 '서울지역본부 친선 축구대회'이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에서 이 2025년 친선축구대회의 우승컵을 잡기 위해 하나 되어 달린 이들이 있다. 바로 은평성모병원 축구 동호회 '오늘FC'(회장 오재훈 교수, 응급의학과)이다. 현재 회원 수 48명으로 은평성모병원 최대 규모의 동호회 중 하나인 이 팀은, 무수한 강팀과의 대결을 이겨내고 2025년 친선축구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본선 진출 후에도 최선을 다해 경기를 이끌어 나갔다.



의무기록팀 권순범 책임



'회오리FC'에서 '오늘FC'로

오늘FC의 전신은 성바오로병원 시절의 축구 동호회인 회오리FC다. 한때 침체되어 있던 동호회는 당시의 원목실장 이경상 바오로 신부(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주교)의 제안에 따라 활성화되었고, 목표했던 교직원 단합을 이루어냈을 뿐 아니라 CMC 체육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성바오로병원에서 은평성모병원으로 소속이 바뀌고, 공모전 및 투표를 통해 팀 이름도 바뀌었지만, 그 근간이 되는 단합력과 실력은 계속 유지되어 올해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디펜딩 챔피언'의 자신감과 새로운 도전들

오늘FC가 2025년 서울지역병원 친선축구대회 본선에 진출하기 전까지 세운 예선 기록에는 재미있는 점이 있다. 4번의 예선 경기 중 1번이 1:0 승리이고, 3번이 각각 1:1, 0:0, 2:2로 무승부다. 심지어 같은 조 내 다른 팀들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조 1위를 달성한 중앙대학교의료원과의 경기에서도, 0:0으로 마무리하며 실점을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록에 어울리는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자칭 별명이 있다. 2024

년 대회에서 전 경기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그리고 2025년 대회에서도 지지 않을 만큼 수비진이 탄탄한 데에서 유래한 별명이다.

그러나 장점인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빠른 역습과 골 결정력을 갖춘다는 새 목표를 세웠다. 공격적인 측면까지 보완한다면 충분히 강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방사선종양학팀 김주석 팀장

물론 승부만큼이나 안전도 중시하고 있다. 경기 전후 스트레칭, 서로를 격려하는 파이팅 넘치는 사우팅 훈련도 이들의 중요 훈련이다.

또 다른 목표는 여성 회원을 확충해 여성 팀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10명의 여성 회원이 있고, 주기적으로 사회인 혼성 축구팀과 경기를 하고 있지만 온전한 여성팀을 꾸리기엔 아직 회원 수가 모자란 상황이다.



기억에 새겨진 승리의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대회 첫 승리의 순간을 꼽았다. 앞선 경기에서 무승부를 겪고, 바로 이대의료원이라는 강팀을

만나 치열하게 경기 중인 상황이었다. 그때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후반 교체로 들어왔던 건진업무팀 이만영 팀장님의 멋진 슈팅으로 드디어 골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목이 터져라 소리쳤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대회 중 동호회 공식 첫 승리의 순간이었죠."



칭찬하는 분위기가 낳은 선순환

오늘FC의 자랑은 질책이나 비난이 없는 분위기다. 장점을 더 키우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키워주는 분위기가 강점이다. 이 문화는 선수들에게 오히려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 스스로 더 발전하고 팀에 기여하기 위해 외부 팀에서 따로 훈련을 하고 오는 회원들도 있을 정도이다.

이런 긍정적 영향력은 교직원과 그 가족들에게도 퍼져나간다. 최근 회원들과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까지 모두 초청해 야유회를 진행한 기억은, 다들 손꼽아 이야기하는 즐거운 추억이었다.



잔디와 공이 선물한 활력과 유대감

오늘FC에게 동호회 활동은 큰 활력소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업무 능률이 올라가고 퇴근 시간까지 즐거워진다고 한다. 축구를 통해 다져진 체력은 덤이다. 시작 후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체력이 늘어 똑같은 일을 해도 힘들지 않다고 한다.

동호회 내 타 부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마주칠 일 없는 다

양한 부서의 동료들을 동호회에서 알게 되고, 서로의 병원 생활에 도움이 되며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된다.



감염관리팀 강준혁 선임



"오늘을 함께합시다!"

비록 2025년 대회에서 우승컵을 쥐지는 못했지만,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들의 의지는 굳건하다. 내년, 내후년, 그리고 더 이후로도 강점은 더욱 키우고, 약점은 보완해 성장할 의지로 가득 차 있다.

"안 다치고 재밌게 즐기는 것, 운동장 안과 밖의 모두가 하나로 뭉쳐 파이팅 넘치게 오늘 이 순간을 즐기시다. 오늘FC, 이제와 항상 Fighting!"(김주석 팀장)



작은 겨자씨가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센터 설립 5주년, 전 기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데모데이 행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공동 운영하는 겨자씨키움센터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 파크에서 '2025 겨자씨키움센터 데모데이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겨자씨키움센터는 2021년 2월 개소 이후 매년 '혁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미래위원'을 선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역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5기 미래위원 20팀은 다양한 교육, 멘토링, 연구비 지원 혜택 속에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최종적으로 2번의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무대에 오른 상위 10개 팀의 무대와 그에 대한 평가 및 수상이 진행됐다. 행사장 외부에는 수술실, 병실 등 병원 콘셉트의 부스존이 설치되어 참석자들이 직접 경험을 볼 수 있었고, 5기 미래위원 전 팀체의 프로젝트 포스터가 전시됐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이경상 주교는 축사에서 "21년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겨자씨키움센터가 이제는 교직원과 연구자들의 도전과 열정을 한데 모으는 혁신의 장으로 자리 잡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다섯 번째 데모데이를 맞이한 오늘 우리 기관과 의료계가 새로운 시대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용기로 맞이하리라 확신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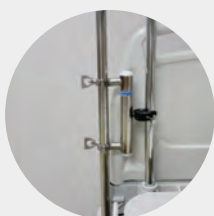


먼저 싹튼 겨자씨



겨자씨키움센터 2024년 데모데이4에서 피식널스팀(서울성모병원 중환자간호팀)은 안전하고 빠른 환자 이송을 위해, 중환자실 환자 이송 준비과정을 단순화한 이동형 폴대고정장치, 'RTG(Ready To Go) Pole Hub'를 개발해 당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피식널스팀은 2025년 데모데이5에 참여해 현재 RTG Pole Hub는 서울성모병원 원내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한림의료기와 협력해 실제 제품 생산 및 서울성모병원에 도입할 예정이라는 현황을 밝혔다.



'RTG Pole Hub' 이동형 폴대 고정장

- 이동형 폴대를 직접 침대에 고정·장착
- 환자 이송 시 폴대만 장착 해제해 이동 가능



구로파워팀

원심력 모터 기반 최

원심력 건조 방식을 활용한 수술용 최소 침습 기구의 신속·안전한



[As-is]

- 복잡하고 정밀한 수술 기구의 완벽한 건조가 어려움
- 인력이 시간을 소모하며 수작업 (에어건)으로 건조 필요



구로파워팀

- ▶ 서울성모병원 간호부 수술간호팀 변상숙, 유석경
- ▶ 서울성모병원 의공학팀 김중석, 차승훈, 박보안

꼼꼼한 건조 하에 상승하

Q. 아이디어 구상 계기가 있다면?

로봇암 세척 후 내부의 물이 잘 제거가 되지 않는데 원인이 어려움 겪습니다. 로봇암 작동 오류로 이 세척 후 적절하게 제거되지 않은 잔류 수분은 부식인 적도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등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쁜 경우가 생기다 선 방법을 항상 고민했고, 노동 위주의, 표준 어려운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할 방법으로 조대와 건조기를 결합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NoVeGf팀

Anti-VEGF 방출형 Ahmed Valve



시명 위험이 높은 중증 안질환인 신생혈관 녹내장 치료를 위해 각각 진행되던 Anti-VEGF 약물치료와 Ahmed Valve 수술을 동시에 실현해 환자 치료 순응도 향상 및 의료 효율성 개선



데모데이 이모저모 5

선도하는 큰 나무가 되다

사 개최

소 침습 수술 기구 자동 건조기

건조

[To-be]

- 원심력 회전+압축 공기 주입
+열풍 건조 요소를 결합
- 기구의 내·외관을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효과적 건조



환자 안전!

Q. 제품 구현의 기대 효과는?

않아 직
의 원인
으로 인
운영하
보니 개
화되기
빨라 건
작되었습

에어건을 이용한 수동 건조의 경우, 한 수술에 사용 되는 기구를 날개로 건조하므로, 수술에 사용된 기구가 많을수록 작업시간이 길어집니다. 본 제품은 수술한 건당 사용한 기구를 한 번에 처리해 건조 시간을 단축합니다.

건조 시간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 감염 위험 감소, 환자 안전 강화, 반복 작업에서 해방된 직원의 만족도 상승, 재처리 시간 단축을 통한 기구 회전을 증가, 수술실 운영 효율 증가 등을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프로토타입/베타 버전을 생산해 서울성모병원 수술실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내 제조, 판매 역량을 갖춘 멸균 지시계 생산 업체인 (주)챔버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고,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 중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시장을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개발



▶ Smooth Movers(스무스)팀 |

환자 안전과 효율적 이송을 위한 레일형 슬라이딩 이송 도구 개발

▶ AIMIS팀 | AI 기반 비식별화/표준화 중심의 의료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AIMIS) 개발

▶ Easy Abga팀 | 실시간 초음파 영상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동맥혈 자동 채혈 기기 개발



▶ Originals(오리지널스)팀 | AI를 활용한 완화간호사 프로그램 개발

▶ 미래치료제 개발팀 | 전자 약을 이용한 항암제 투여 환자의 말초신경계 부작용 완화

▶ CAUTI ZERO팀 | 감염 관리를 위한 휠체어 옆면 소변백 거치 장치의 설계 및 개발

▶ PATHS팀 | 개방형, 폐쇄형 스텐트를 결합한 뇌혈관용 하이브리드형 스텐트 개발

▶ New Things(뉴띵스)팀 | 충전선 간소화를 위한 차세대 IV-Pole 도킹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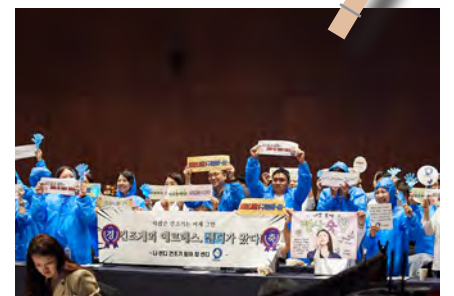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 축사



데모데이5 포스터존&부스존 전경



은평성모병원 보직자 및 CAUTI ZERO팀 단체 사진



교직원들의 응원 모습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

맛있는 것만 보면, 밥만 먹으려고 하면 갑자기 턱이 아프다면?

● 침샘의 역할과 중요성

귀밑의 이하선, 턱밑의 악하선, 그리고 혀 아래의 설하선을 포함하는 '침샘'은 단순히 침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소화와 구강 건강을 지키는 필수 기관이다. 침은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 작용뿐 아니라, 아밀라아제 효소를 통해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면역글로불린과 라이소자임 등의 항균 성분으로 구강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이는 이유는 부교감신경을 통해 뇌가 침샘에 '소화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침샘은 소화의 시작을 돕고 구강 건강을 지키는 필수 기관이다.

● 갑작스러운 턱 통증, 혹시?

침샘염은 침샘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침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거나 통로가 막히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음식을 먹거나 생각할 때 귀밑이나 턱밑이 붓고 아픈 것이다. 통증은 육신 거리거나 찌르는 듯할 수 있다. 심한 경우 발열, 오한, 전신 무력감이 나타나며, 눌렀을 때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세균 감염이며, 바이러스 감염(예: 유행성이하선염), 침이 나오는 길이 돌(타석)로 막히는 타석증, 탈수나 전신질환으로 인한 침 분비 감소, 구강 위생 불량, 면역력 저하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붓기가 심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초음파나 CT 등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항생제, 수액 보충, 온습포, 마사지, 타석 제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침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침샘염을 예방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 ▷ **충분한 수분 섭취**: 침 분비를 촉진하고 점도를 낮춰준다. (하루 1.5L 이상 권장)
- ▷ **구강 위생 관리**: 식후 칫솔질과 가글로 구강 내 세균을 줄여줄 수 있다.
- ▷ **침 분비 자극**: 무설탕 껌이나 레몬 사탕은 침샘을 부드럽게 자극해 도움이 된다.
- ▷ **침샘 마사지**: 식전 또는 식후에 귀밑에서 턱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침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자극적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 자제**: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리만으로도 침샘 기능을 유지하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붓기와 통증이 반복되거나 발열이 동반된다면 자가 치료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감수: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오형 임상진료조교수)



CMC 속으로

생명존중기금, 1936년부터 이어져 온 생명 존중을 향한 염원

"조선교구 설정 백주년 기념으로 적은 병원 하나 설치합시다. 이번 백주년을 맞게 경축함에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겠지만 이제 우리 조선 성교회 현상에 비추어 제일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곧 의료기관의 시설인줄로 믿습니다."

1936년, 경성대교구(현 서울대교구)는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개선을 추진해 명동에 성모병원을 건립했다. 이 당시 모자란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성상업학교 직원 생도들을 비롯해 신자들이 크고 작은 모금 활동을 진행한 것이 건립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재 생명존중기금으로 자리 잡았다. 생명 존중의 정신과 실현을 위한 모금은 CMC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것이다. 생명존중기금은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주관으로 그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후원회사무국 제도는 2006년 당시 서울성모병원 새 병원 건립을 포함한 전환을 계획하던 시기에 '새병원 후원회사무국'이 신설되며 구체화되었다. 이를 계승해 2009년경 가톨릭중앙의료원 공식 모금 전담 부서인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이 신설되었다. 이후 2010년경 공식적으로 '생명존중기금'이 출범했다.

후원회사무국은 현재 '나눔을 잇다, 희망을 짓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료인 양성, 난치병 정복을 위한 연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8개 병원에서의 환자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 국내·외 기부금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며 많은 것이 따라 변했지만, 그 중심이 되는 생명 존중에 대한 염원은 같은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 CMC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8개 병원을 아우르는 의료 네트워크로 성장한 지금도, 생명존중기금은 나눔을 잇고, 희망을 지어가며 가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생명존중기금 분야

- ◆ **사회공헌 분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우 지원, 국내 거주 다문화/이주민 환우 돕기, 해외 의료선교
- ◆ **진료 분야**: 의료 네트워크 강화, 진료환경 개선, 의료장비 구입
- ◆ **교육 분야**: 학생지원(장학금), 교육환경 개선(공간, 시설, 교육장비)
- ◆ **연구 분야**: 연구자 활동 지원, 희귀·난치·불치병 치료기술 개발 지원, 핵심 연구 장비 도입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TEL. 02-2258-7992~3, 7995~6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두 사진 중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5.11.14.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인천성모병원, 부평풍물대축제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운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최근 제29회 부평풍물대축제에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구 신트리공원과 부평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지역 대표 문화축제로, 올해 축제는 '가치 있는 풍물축제, 같이하는 부평축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인천성모병원은 축제 현장에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교육했다. 부스에서는 전문 의료진이 시범을 보인 후 참가자들이 직접 인형을 대상으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체험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안전하게 전기 충격을 전달하는 방법을 교육한 데 이어 실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아태지역 첫 ‘단일공 비뇨기 로봇수술’ 1,000례 달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이지열 교수) 비뇨의학과가 단일공(SP, Single Port) 비뇨기 로봇수술 1,000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달성했다. 지금까지 집중해 왔던 비뇨기 최소침습수술의 성과다. 1,000례 중 87%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로, 암 환자 869명의 질환은 신장암

46%(400명), 전립선암 37%(319명), 요관암 10%(89명), 신우암 5%(46명), 방광암 2%(15명) 순이었다.

수술 방식 중에서는 고난이도 신장암 수술인 ‘로봇 단일공 부분신장절제술’이 43%(425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수술은 의사가 조종석에 앉아 환자의 몸에 삽입된 카메라와 수술 도구가 달린 로봇팔을 조작해 진행하는 최소침습 수술법으로, 기존의 개복수술과 달리 4~6개의 구멍을 통해 수술이 가능해 흉터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의료진들은 북미나 유럽에서 남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립선암이 국내에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단일공 로봇을 활용한 최신 술기들을 적용해 왔다. 그 중 하나는 국내 최초로 단일공 로봇수술을 접목한 레치우스(Retzius) 보존 전립선절제술로 전립선암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요실금과 발기부전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로봇수술센터장 홍성후 교수는 “전립선암이 2024년 기준 국내 남성암 1위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번 비뇨의학과 단일공



로봇수술 1,000례 달성이 단일공 로봇수술의 안정성은 더욱 높이고 부작용은 줄여 환자분들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안과병원

하루 587명 찾았다

"전공의 복귀가 전환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안과병원(병원장 나경선)이 지난 10월 14일(화) 당일 외래환자 587명을 기록하며 개원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의정갈등 이전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번 성과는 전공의 복귀 이후 토요일진료와 일반진료를 새롭게 개설하고, 직군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등 진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로 다양한 안과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수술 시스템도 정비했다. 사전 평가부터 수술 일정과 사후 관리까지 일원화된 조율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직군 간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타과 협진 체계도 강화했다. 안질환 중 전신 질환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실명과 직결된 질환이 많다. 당뇨망막병증은 내분비내과,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순환기내과, 포도막염·강직성 척추염·베체트병은 류마티스내과, 안내 림프종이나 바이러스성 망막염은 혈액내과, 망막혈관 폐쇄는 신경과 등과 긴밀한 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타과 협진 강화로 동반 질환 관리가 체계화되면서 치료 효율과 예후가 모두 개선됐다.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을 찾는 환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환은 백내장이다. 이어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안구건조증 순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행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안과질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선 안과병원장은 “외래 587명 돌파는 접근성·정확성·신속성 세 가지를 모두 높이려는 여의도성모병원 전 교직원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여의도성모 안과병원은 환자 중심의 진료를 기반으로 의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고도화해 가톨릭 영성을 구현하는 대표 안과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

상부 경추 고정술 연구 세계 공동 4위



홍재택 교수

과 홍재택 교수가 상부 경추 고정술(Upper Cervical Spine Fixation) 분야 연구에서 전 세계 개인 연구자 중 논문 수 기준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홍재택 교수는 두개경추 접합부(craniocervical junction)와 상부 경추 병변의 수술적 정렬(surgical alignment), 생체역학(biomechanics), 변형 교정(deformity correction) 등에 관한 다수의 국제 논문을 발표하며 척추외과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해 왔다.

특히, 상부 경추 수술 시 혈관 및 척추의 구조적 변이(vascular and bony structural variations)의 수술 전 정밀 평가와 수술 중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상부 경추 고정술에서 연하곤란(dysphagia) 예방과 적절한 정렬 유지의 중요성을 규명한 연구들은 임상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은평성모병원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상부 경추 질환 및 척추 변형 분야의 국제적 연구 협력과 학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환자 중심의 첨단 의학 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척추 치료와 연구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World Neurosurgery》 최신호(Vol.193, 2025)에 게재된 ‘Recent Global Trends and Hotspots in Occipitocervical Fusion: A Bibliometric Analysis and Visualization Study’(Gorbacheva A. 외, 시애틀 사이언스 재단 연구팀)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경외



성의교정

포스텍-가톨릭대, 국내 최초 의과대학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가톨릭대학교와 포스텍이 국내 최초로 의과대학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학위 제도를 도입했다. 공동학위제는 안정적인 연구 성과와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교육, 연구, 사업화가 긴밀히 연결된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생태계를 구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우주의학' 선도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우주의학 선도를 위해 '가톨릭우주의학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센터 개소는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우주의학 혁신 의료기술 개발 부문 선정에 따른 것으로, '우주환경 활용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인공혈액 제조 공정 혁신기술 개발'을 주제로 2029년 4월 30일까지 총 연구비 108억 원이 지원된다.

여의도성모병원

교직원 격려, '어서와 푸드트럭은 처음이지?' 개최



여의도성모병원은 최근 교직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어서와 푸드트럭은 처음이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원 영성부 주관으로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푸드트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평소보다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즐겼다.

의정부성모병원

양주소방서와 지역 응급의료 협력 지속 강화



의정부성모병원장 신경외과 이태규 교수는 최근 양주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간식을 전달했다. 지속적인 응급의료 체계 기여의지를 다지고,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태규 병원장은 양주소방서장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양주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소방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부천성모병원

실무 면접관 '영성모인' 제도 도입



부천성모병원은 실무에 당하는 젊은 직원이 채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영성모인(Young+성모+인(人))' 면접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직원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며, 직원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여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근속 기간 3년 이상의 직원 14명이 선발되었고, 원내·외 교육을 수료하고 실습과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면접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은평성모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제13회 호스피스 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을 받았다. 병원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 확산에 공헌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의료진 대상 윤리교육, 환자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해 존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수상에 일조했다.

인천성모병원

'사랑, 나눔, 실천' 헌혈 캠페인 진행



인천성모병원은 혈액 수급 안정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사랑, 나눔, 실천'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마련됐다.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헌혈에는 총 92명이 동참했다.

대전성모병원

환자 중심 문화 확산 교직원 캠페인 실시



대전성모병원은 최근, 환자에게 '한번 더 다가갔습니다',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더 들었습니다'를 실천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달하는 '함께하는, 항상 그랬다'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직자와 CS(고객만족)팀은 환자접점 부서를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작성한 칭찬카드와 간식을 전달했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AAALAC International 콘퍼런스 발표



의생명산업연구원 실험동물연구센터 전희연 수의사가 국제실험동물인증관리협회가 주최한 콘퍼런스 발표에 참여했다. 전 수의사는 본 센터에서 운영 중인 실험 종료 후 동물유래자원을 공유하는 연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고, 연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한 사례를 공유했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임명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정낙균 교수(소아 청소년과)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정낙균 교수는 서울성모병원과 외부 학회 및 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맡아 환자 진료, 연구, 후학 양성에 힘써왔으며, 이번에 이사장을 맡아 2025년 9월부터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정신건강의 날' 맞아 대통령 포상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수립과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제17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인식 개선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 교수는 정부 정신건강사업의 자문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한 대표 전문가로서 근정포장을 수훈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젊은 연구자상'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박형열 교수가 '제69차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APOA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 해당 상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만 40세 미만의 회원 가운데 탁월한 업적을 이룬 1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박형열 교수는 총 8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한 점과 각종 연구과제를 우수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오츠카학술상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종현 교수가 최근 열린 '2025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정신약물학회 오츠카학술상'을 받았다. 정 교수는 정신약물학 및 생물정신의학 분야에서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매극복의 날 복지부 장관상



대전성모병원 신경과 이상봉 교수가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협력의사, 치매사업관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 치매 대응 역량 강화와 어르신 의료 보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 의료진 단기 연수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월 23일부터 4일간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 소속 의료진을 초청해 단기 연수를 진행했다.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은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와 운영하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지원하는 자선 진료소로 2022

년 설립되어 현지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선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회공헌 전담기구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CMA)를 통해 2023년부터 매년 2회 코미소 클리닉에서 의료봉사 활동도 진행해 왔다.

이번 연수에는 캄보디아 코미소 클리닉 의료진 중 의사 2명·간호사 2명·임상병리사 1명·행정직원 2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참여 의료진들은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및 서울성모병원 벤치마킹, 의정부성모병원 외국인용 건강검진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기관을 방문해 한국 가톨릭 선진 의료 현장을 체험했다.

코미소 클리닉 전담 의사이며 관리자인 양 짜이(Yang Chai, 31세) 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정



보 시스템을 배워갈 수 있었고, 연수 기간 동안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어서 참여 코미소 클리닉 의료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가톨릭중앙의료원과 부속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연수 소감을 전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IFC SEOUL, ‘로맨틱한끼’ 수익금 포함 1,612만 원 기부 여의도성모병원 취약 환우 위해 전달



IFC SEOUL과 입주사가 여의도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기금으로 지난 2025년 9월과 10월에 총 1,612만 원을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9월 18일, IFC SEOUL에서 개최된 ‘로맨틱한

끼’ 행사에서 조성된 수익금과 IFC SEOUL이 매칭한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로맨틱한끼’는 입주사를 대상으로 음악 공연과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 행사로,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져 큰 의미를 더했다.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치료가 절실한 취약 환우

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여의도성모병원을 통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IFC SEOUL은 지난 2023년에도 ‘로맨틱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발생한 판매 수익금을 여의도성모병원에 기부한 바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매년 ‘로맨틱한끼’ 행사를 통해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 박성원·김희진 부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자선기금 1억 원 기부

박성원·김희진 부부가 중증 질환 환우들을 돕기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자선기금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축복의통로 자선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용 기금을 신설해 중증 질환을 앓는 의료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13일(월) 오후 2시에 민창기 의원원장은 박성원 기부자를 대표로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박성원 기부자와 대한교직원공제회에서 20여 년간 동료 심사위원으로 함께 일한 강창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함께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김희진 후원자가 치료비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며 환우들의 막대한 심정은 어떨지 생 각하니

수술을 받는 상황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알지 못할 환우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

박성원 기부자는 “이번 기부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소속 의료진들의 정성 어린 치료를 받아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자리에 함께한 강창석 교수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박성원 기부자는 “공제회 심사위원으로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겪은 강 교수님의 따뜻한 인품을 늘 존경해 왔다.”며 “강 교수님과 인연과 신뢰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의 기부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민창기 의원원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절망하고 포기할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라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은 소중히 잘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년 9월 신규 약정자 명단



(재)우덕재단	8,630,000원	김현경	100,000원	김혜란	20,000원	옥승윤	600,000원	우종현	100,000원	주식회사 파스쿠아	1,000,000원
(재)정산장학재단	1,500,000원	김혜정	100,000원	김희정	100,000원	원선재	1,200,000원	원은주	200,000원	주식회사 파크웨이메셋	50,000원
(재)향설서석조각사기념사업회	10,442,000원	남수진	50,000원	문선애	50,000원	유정연	50,000원	유현주	50,000원	주중록	350,000원
(주)굿모닝메디칼	10,000,000원	문자운	500,000원	바보의 나눔	7,193,170원	윤성혜	50,000원	윤지선	100,000원	직접판매공제조합	830,000원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300,000원	박나령	50,000원	박미리	50,000원	이경미	20,000원	이경희	300,000원	진우프라임조경	150,000원
(주)피엔엘인테리어	100,000,000원	박상은	10,000,000원	박상진	50,000원	이덕자	5,000,000원	이동익	50,000,000원	최문경	10,000원
AGI 손해보험	50,000원	박세린	50,000원	박여진	50,000원	이성중	1,000,000원	이예지	50,000원	최양하	100,000,000원
IFC SEOUL 입주사	3,420,000원	박예솔	50,000원	박윤아	100,000원	이우진	50,000원	이은지	50,000원	최은미	50,000원
강대현	50,000,000원	박정준	100,000원	박정훈	20,000원	이재향	10,000,000원	이지원	50,000원	최혜선	100,000원
강준오	10,000,000원	박준석	1,000,000원	배인옥	50,000원	이진아	50,000원	이태원	100,000원	케어링아이웨아코리아 유한회사	200,000원
경의동사	3,000,000원	배인찬	30,000원	배호진	50,000원	이현지	50,000원	이혜승	50,000원	파크원플러워	50,000원
고은화	100,000원	백동훈	100,000원	백승민	50,000원	익명1	10,000원	익명2	392,000원	포천좋은신문 주식회사	400,000원
곽종우	2,000,000원	백진주	100,000원	변준희	10,000,000원	익명3	50,000원	익명4	10,000원	하서진	50,000원
구병훈	50,000원	브릿지 스킴	1,000,000원	익명5	500,000원	익명6	500,000원	익명7	1,000,000원	한송의	50,000원
권연주	50,000원	사회적협동조합 신희사회공헌재단	1,000,000원	익명9	1,000,000원	익명8	1,000,000원	익명9	100,000원	허 선	1,000,000원
김경아	100,000원	서현지	50,000원	송명선	200,000원	익명9	500,000원	익명10	5,000,000원	황준선	30,000원
김성경	1,000,000원	송진호	100,000원	송천재단	6,000,000원	익명11	600,000원	익명12	2,000,000원	김효연	매월 10,000원
김세인	1,000,000원	신익경	20,000원	신현준	50,000원	익명13			100,000원	백지연	매월 10,000원
김우영	100,000원	안기현	500,000원	안남영	10,000원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			18,000,000원	장 선	매월 27,000원
김유림	50,000원	양선민	100,000원	여선우	200,000원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10,000,000원	진영숙	매월 20,000원
김은진	10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센터			150,000원	재단법인 중앙장학회			31,800,000원	포천좋은신문 주식회사	매월 20,000원
김지우	50,000원	여의도성모병원 자원봉사센터			157,270원	전지현	50,000원	정나연	50,000원		
김창영	100,000원	오은실	100,000원	오혜정	50,000원	정 불	50,000원	정수미	5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주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행장 정연준 교수)은 지난 9월 19일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관해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연준 교수를 비롯해 주최자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한국조혈모세포협회 이흥기 회장, 한국혈액학회 박성숙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희선 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그리고 조혈모세포이식 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이식은 전체 이식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며, 연간 3천여 명의 환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치료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환자의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다는 문제점 등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기관의 법적 근거 명문화,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수혜자들의 자기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 또는 정부보조금 지원 등,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연준 교수는 현재 이식조정 사업은 다른 장기이식과 달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제기하며, 타 장기기증처럼 지원 체계와 급여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과 환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에 환급받는 구조의 개선을 제안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제도화, 수가화, 기증자 관리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앞서 표준화 과정을 통해 행위별 비용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호 대학

한대일 국제 세미나 개최

한대일 국제 간호 세미나가 2025년 9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대만 국립 양명교통대학교 주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심리사회적 안녕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며, 영어를 기반으로 한 논의와 발표를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간호사의 심리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세미나에는 가톨릭대학교(한국), 양명교통대학교(대만), 교토대학교(일본), 에딘버러대학교(영국) 등 4개국 4개 대학의 간호대학 학부생, 임상간호대학원생, 기타 대학원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협력을 통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김수정 교수는 지난 10월 2일,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서의 심리사회적 고려'를 주제로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정서적·사회적 지원의 중요성과 실제적 접근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간호 교육의 국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생애주기별 돌봄의 복합적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WCC와 MOU 체결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Two Worlds Cancer Collaboration Foundation(이하 TWCC)과 글로벌 소아 완화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 핸드북'을 다국어로 번역·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TWCC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번역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한다.

MOA는 ▲번역 책임 ▲출판 및 배포 ▲법적 지위 ▲지적 재산권 보호 ▲기밀 유지 및 공로 인정 등 협력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핸드북은 전 세계 의료진과 돌봄 제공자들이 소아 및 청소년 대상의 완화의료 지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다국어 번역을 통해 더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협약 및 번역은 2025년 9월 중 개시되며, 최종 검수는 올해 11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TWCC는 이번 번역 작업을 통해 소아 완화의료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번역본은 향후 편집 과정을 거쳐 각국의 의료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며,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성모

'찾아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캠페인 실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의료윤리사무국과 함께 최근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를 활용한 옹진군 보건소의 '섬방방곡곡 찾아가며 보건교육' 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행사는 건강옹진호 내 보건교육실에서 승봉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성모병원 교직원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바로 알기 캠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을 통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올바른 호스피스 인식을 전했다.

승봉도 주민 김 모 씨는 "막연하게 호스피스는 임종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평안한 삶을 위한 돌봄이라는 설명이 가슴에 닿았다."며 "호스피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전 성모

대전고등법원과 의료감정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9월 2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청사에서 대전고등법원과 의료감정 절차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고등법원 내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관내 의료감정 효율화와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전성모병원은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구성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체·진료기록 감정을 실시, 의료감정 지연에 따른 재판 장기화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강전용 대전성모병원장은 "의료계와 사법부와의 역량을 연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하며, 지역의 대학병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성실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주치의, 병원 밖 환자까지 돌본다

서울성모병원, 국가전략사업 '닥터앤서 3.0' 총괄 주관
병원과 가정을 잇는 인공지능 플랫폼... "아파도 집에서 든든하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국가전략사업인 '닥터앤서 3.0'의 총괄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생태계 조성의 중책을 맡았다. 지난 10월 1일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닥터앤서 3.0 사업단은 환자가 의료 시의 도움을 받아 치료 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환영사에서 "환자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제시라는 비전과 노력으로 글로벌 의료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진 사업단장(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의료 시를 활용해 의료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가 글로벌 선도 모델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4대 중증 질환 예후 관리 선도

서울성모병원은 사업단 운영과 함께 우선 선정된 제1 세부과제를 이끈다. 암(유방암, 신장암), 심장질환, 피부질환의 4개 분야에서 **병원과 가정을 연계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림프부종이나 폐경 이환 가능성을, 신장암 환자는 수술 후 신부전증 발생 가능성을 시가 예측해 환자 중심의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시가 심장마비 전조 감지, 증상 악화 예방

특히 심장질환 환자는 퇴원 후 가정에서도 시 소프트웨어가 실시간 데이터를 정밀 분석,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의 전조를 조기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피부질환 분야에서는 멀티모달 시를 통해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증상 악화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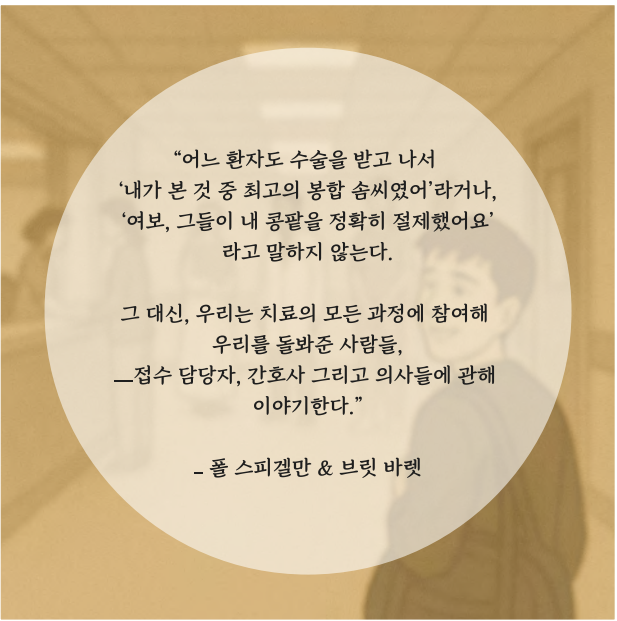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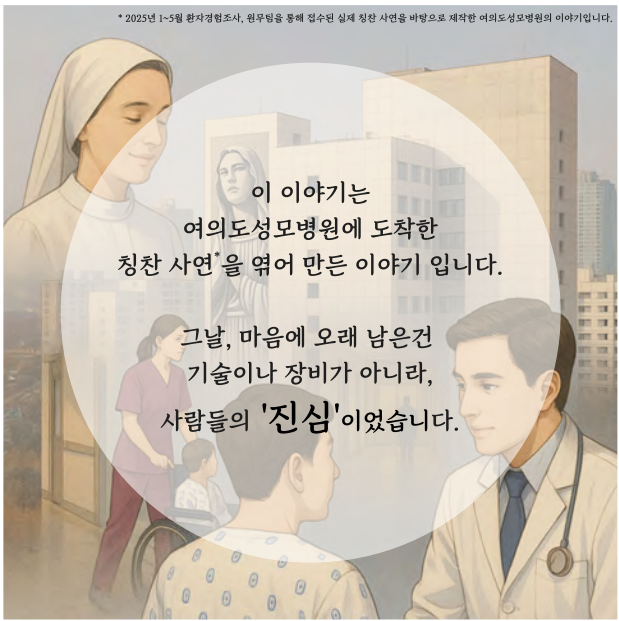


'닥터앤서 3.0', 진료 보조 넘어 '일상 관리'로

'닥터앤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의료 시 프로젝트다. 지난 1.0과 2.0 사업이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 보조'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0은 시의 역할을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관리 및 예후 관리'로 대폭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세브란스병원 컨소시엄(위암, 대장암 등 6종)이 추가 선정되어, 총 10종의 질환에 특화된 AI 예후 관리 서비스가 개발될 예정이다.

Dr. Answer 3.0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이해국 교수, '정신건강의 날' 맞아 근정포장 수상 정부 정신건강정책 수립 기여 공로로 대통령 포상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가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수립과 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5일(수),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제17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인식 개선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에서 이 교수는 정부 정신건강사업의 자문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한 대표 전문가로서 근정포장을 수훈했다.

이해국 교수는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의료진의 노고를 대표해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 교수를 비롯해 지역 사회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연구와 진료, 공공 정신의료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마음까지 치유하는 병원'이라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조항주 교수, 국제진료센터장 및 대외의료협력부센터장 임명 국경을 넘은 생명 구호 공로로 이태규 병원장의 신임받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권역외상센터장이 국제진료센터장 겸 대외의료협력부센터장으로 임명됐다.

임명장은 10월 16일(목) 의정부성모병원 월례조회에서 이태규 병원장으로부터 수여됐다. 조항주 교수는 다년간 외상외과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며 '국경 없는 외상 전문의'로 명망을 쌓아왔다. 이러한 국제적 역량과 헌신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 국제진료센터장 임명에 병원장의 아낌없는 지지와 신임을 받았다.

조항주 교수는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전 세계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의 의료 역량을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인지역 최초 당뇨병센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당뇨병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몸 곳곳을 위협하는
당뇨병 합병증
꾸준한 관리가 최선!

합병증 예방 방법

- **적정 혈당수치 유지**
 - 규칙적인 혈당 측정
 - 건강한 식단
 - 규칙적인 신체활동
 -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
-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정상 유지**
 - 건강한 생활습관(금연 등)
 - 적절한 체중 유지
-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



검사 종류	혈액검사	소변검사	안저검사	신경검사	경동맥검사
확인 가능한 당뇨병 합병증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신부전 등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성 케톤산증, 순환기계 질환 등	당뇨병성 망막병증, 백내장, 각막 지각 감퇴 및 상피 손상 등	족부 절단, 부정맥,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위장관계, 비뇨생식계 질환 등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
검사 주기	연 4회(매 3개월마다)	진단 당시와 매년 시행 (환자 상태에 따라 3~6개월 내에 2회 검사 시행)	당뇨병 진단 즉시, 이후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

당뇨병센터 의료진 시간표



유순집 교수

당뇨병, 비만, 뇌하수체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내분비질환
[오전] 월, 화, 목 [오후] 목



김성래 교수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내분비질환,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비만
[오전] 월, 수, 목 [오후] 화



이성수 교수

당뇨병, 골다공증,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오전] 수, 금 [오후] 월, 화



손장원 교수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내분비질환,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비만
[오전] 화, 금 [오후] 수, 목



문혜원 임상강사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내분비질환,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비만
[오후] 수, 목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 획득

www.cmcep.or.kr

신속하고 정확한 뇌졸중 치료 은평성모병원이 선도합니다



✓ 119 연계 신속 프로세스로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 혈전제거술 및 코일색전술 등 뇌졸중 핵심 치료 제공

✓ 뇌혈관조영술 및 개두술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술실 보유

✓ 24시간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은평성모병원 뇌졸중 분야 3관왕 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등록사업
최우수병원 선정



대한뇌졸중학회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